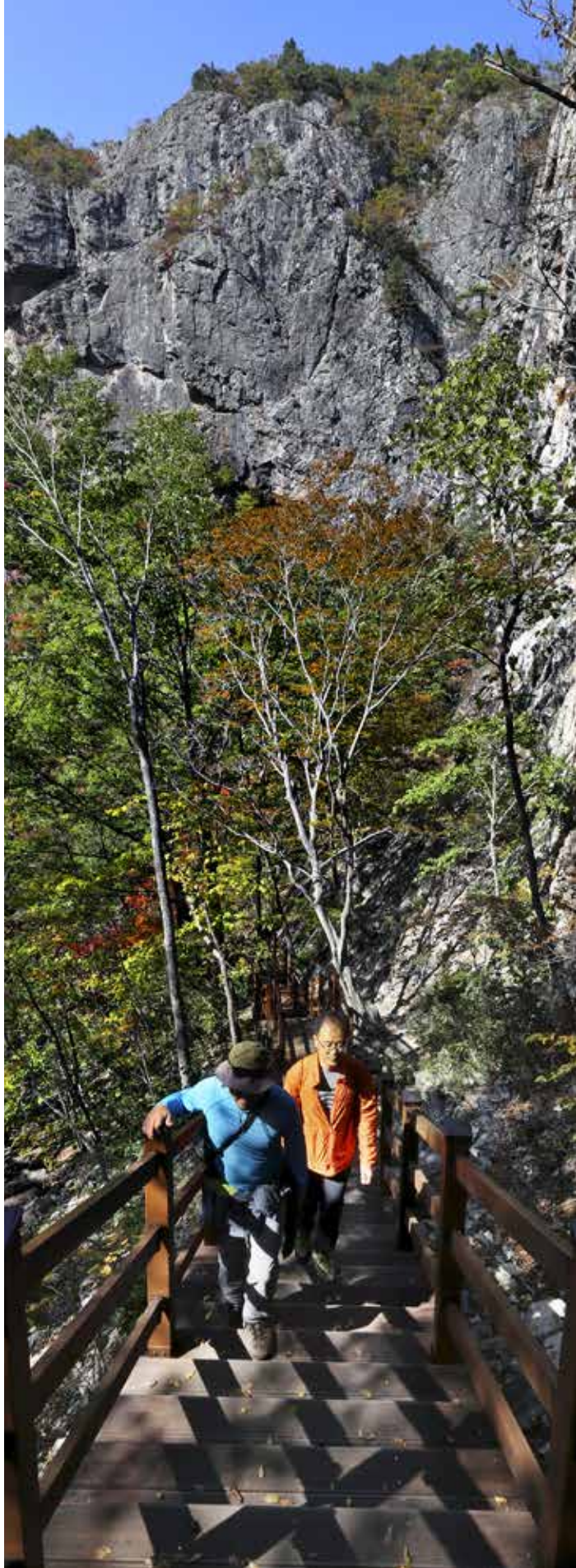


Korean Trail 63rd Story

재약산 생태탐방로 폭포의 비경과 억새 물결에 취하다

산행에 가장 좋은 계절은 역시 가을이다. 높고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맑고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걷는 기분이 무척 좋다. 노랗고 빨갛게 물든 산과 은빛 물결 출렁거리는 억새군락지는 가을에만 만끽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다. 지난 10월 중순 영남알프스의 준봉 중 으뜸으로 여겨지는 재약산. 맑은 물 쏟아내는 계곡 길 끝에는 푸른 하늘 아래 억새가 덩실덩실 춤추는 은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 등 영남 5개 사군을 잇는 영남알프스는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해발 1천m 이상의 산군(山群) 7개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울산과 밀양의 경계에 있는 재약산은 해발 1천119m로 가지산(1,241m), 천황산(1,189m), 신불산(1,159m)에 이어 네 번째이지만 산세와 풍광으로는 단연 으뜸이다. 특히 동남쪽 사면의 해발 720~760m 고원에 있는 사자평은 고산습지로 이탄층이 발달하고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주봉인 사자봉(1,189m)과 수미봉(1,090m), 향로봉(1,091m)이 하늘을 떠받치고 발치에는 호국 사찰인 표충사를 품고 있다.

재약산은 예로부터 약초로 유명하다. 재약(載藥)도 약이 실린 산이라는 뜻이다. 신라 흥덕왕의 왕자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곳 표충사(창건 당시 죽림사)에서 약수를 마신 후 환부를 씻고 깨끗이 나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흥덕왕은 절 이름을 병을 낫게 한 영험한 우물이 있다는 뜻에서 영정사(靈井寺)로 고쳐 부르게 하고, 사찰을 품은 산은 좋은 약초가 많이 나는 산이라는 뜻에서 재약산으로 부르게 했다고 한다.

재약산 등산로는 울산에 2개, 밀양에 4개 코스가 있다. 이 중 가장 사랑받는 코스는 표충사에서 동편 옥류동천을 따라 간 후 사자평을 거쳐 사자봉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이날 산행은 표충사에서 사자평까지만 목표로 삼았다.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된 1구간의 공사가 최근 완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표충사에서 옛 고사리분교까지 3.2km 구간의 공사가 끝났고, 내년 말까지 사자평까지 1.1km 구간에 대한 일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정약수로 목 축이고 산행 시작

재약산 생태탐방로의 출발점인 표충사.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처럼 재약산의 봉우리들이 사찰을 포근하게 감싼 형국이다. 표충사는 원효대사가 654년 창건한 절로 원래 이름은 '죽림사'(竹林寺)였다. 지금도 사찰 뒤편 언덕으로 대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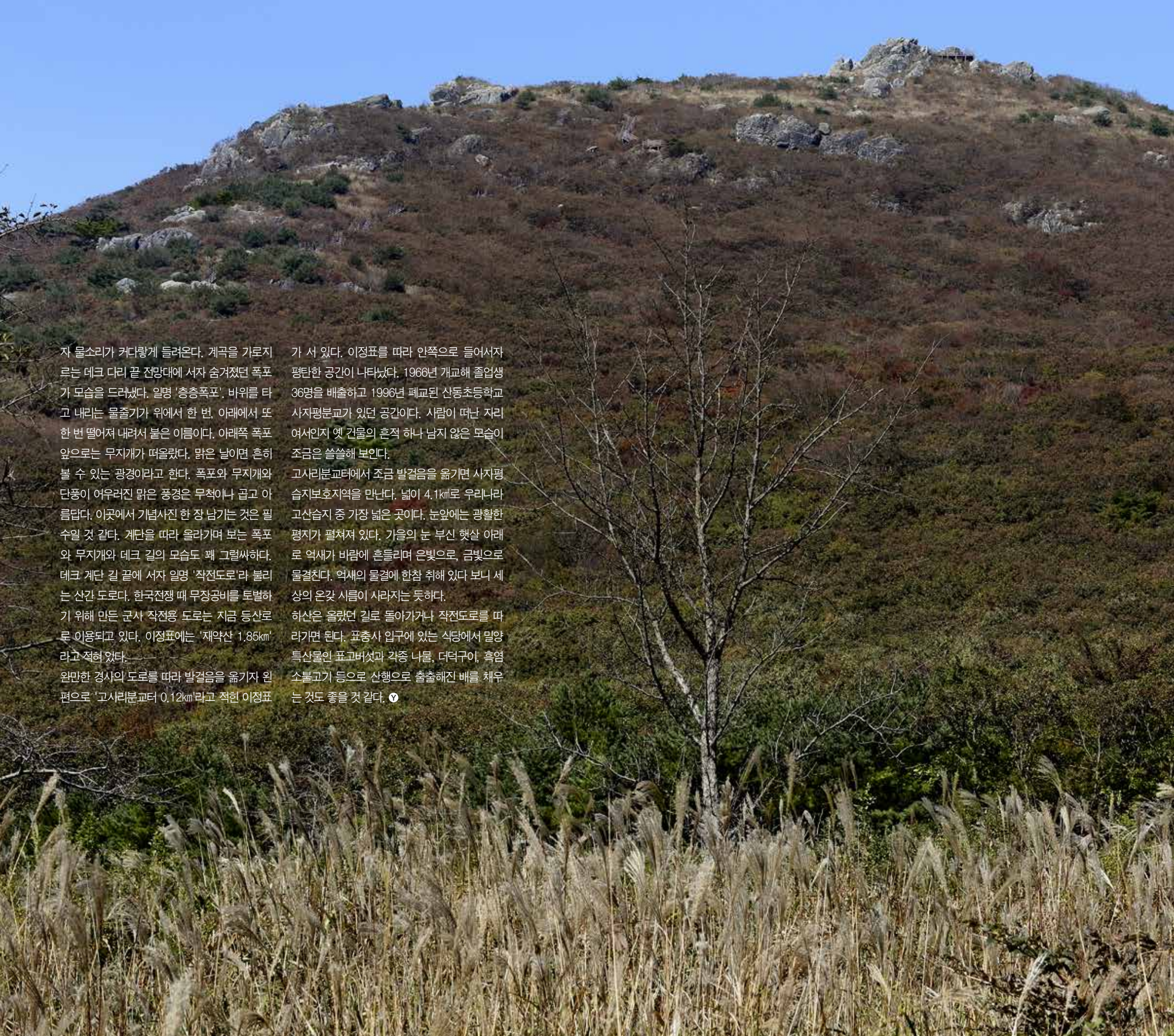
이 울창하다. 표충사란 이름은 사명대사와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큰 공을 세운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를 기리기 위한 표충서원을 1839년 이곳으로 옮기고 중창하면서 이름을 표충사로 바꿨다. 표충사는 사찰과 유교서원이 함께 있는 독특한 절이다. 한쪽에는 신라 흥덕왕의 아들이 사용하고 병을 고쳤다는 약수가 졸졸 흘러내리는 약수터가 있다. 이름은 '영정약수'(靈井藥水). 바가지 한가득 담아 들이켠 약수는 무척 달고 시원했다.

표충사 오른쪽의 등산로로 접어들었다. 나무 그늘 시원스러운 임도를 따라 걷자 이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다. 크고 작은 바위가 가득한 계곡을 따라 투명한 계수가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내린다. 계곡을 따라 줄지어 선 나무들은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계곡을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자 오르막이 시작된다. 조그마한 계곡의 바위들은 이제 집채만 하다. 경사가 가팔라지고 바위가 커진 만큼 물 흐르는 소리도 커졌다.

그늘진 숲길을 따라가다 가파른 데크 계단 길에 들어서자 마침내 탁 트인 하늘 아래 재약산이 속살을 드러냈다. 데크 계단 중간에 마련된 전망대에 서자 맞은편으로 웅장한 기암들이 장식한 두 봉우리 사이의 계곡을 따라 길고 하얀 물줄기를 쏟아내는 흑룡폭포가 나타났다. 시커먼 바위를 타고 흐르는 하얀 물줄기를 보니 백룡폭포라 불려도 좋을 듯하다. 전망대를 벗어나 다시 계단을 오른다. 오른쪽으로 기암과 푸른 소나무가 뒤엉킨 풍광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습을 바꾸며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약간 흠집이 이어지더니 다시 울긋불긋 단풍이 고운 데크 계단길에 이어진다. 데크 계단길 끝에 서자 영남알프스의 준봉들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며 눈 앞에 펼쳐진다. 무척이나 평화로운 광경이다.

충충폭포 지나면 펼쳐지는 역세군락지

길은 숲길과 데크 계단길에 반복된다. 구룡폭포를 감상한 후 커다란 기암이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걸린 구간을 지나



자 물소리가 커다랗게 들려온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데크 다리 끝 전망대에 서자 숨겨졌던 폭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명 '층층폭포'. 바위를 타고 내리는 물줄기가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또 한 번 떨어져 내려서 붙은 이름이다. 아래쪽 폭포 앞으로는 무지개가 떠올랐다. 맑은 날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한다. 폭포와 무지개와 단풍이 어우러진 맑은 풍경은 무척이나 곱고 아름답다. 이곳에서 기념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은 필수일 것 같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보는 폭포와 무지개와 데크 길의 모습도 꽤 그럴싸하다. 데크 계단 길 끝에 서자 일명 '작전도로'라 불리는 산간 도로다. 한국전쟁 때 무장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만든 군사 작전용 도로는 지금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정표에는 '재약산 1.85km'라고 적혀 있다. 원만한 경사의 도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왼편으로 '고사리분교터 0.12km'라고 적힌 이정표

가 서 있다. 이정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서자 평탄한 공간이 나타났다. 1966년 개교해 졸업생 36명을 배출하고 1996년 폐교된 산동초등학교 사자평분교가 있던 공간이다. 사람이 떠난 자리여서인지 옛 건물의 흔적 하나 남지 않은 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인다. 고사리분교터에서 조금 발걸음을 옮기면 사자평습지보호지역을 만난다. 넓이 4.1㎢로 우리나라 고산습지 중 가장 넓은 곳이다. 눈앞에는 광활한 평지가 펼쳐져 있다. 가을의 눈 부신 햇살 아래로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으로, 금빛으로 물결친다. 억새의 물결에 한참 취해 있다 보니 세상의 온갖 시름이 사라지는 듯하다. 하산은 올랐던 길로 돌아가거나 작전도로를 따라가면 된다. 표충사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밀양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각종 나물, 더덕구이, 흑염소불고기 등으로 산행으로 출출해진 배를 채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재약산은 영남알프스 산 7개 중 가히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맑은 계수 흐르는 계곡을 따라가면 흑룡폭포와 층층폭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고, 해발 720~760m에는 억새가 은빛으로, 금빛으로 물결치는 사자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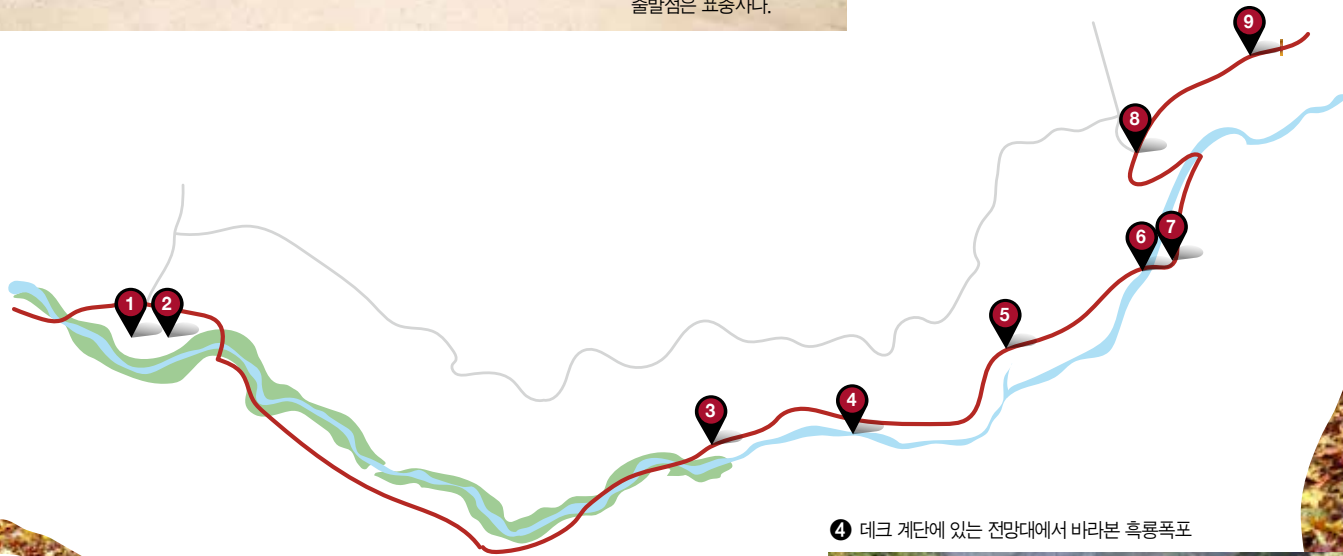




❶ 재약산 생태탐방로의 출발점은 표충사다.



❷ 표충사 경내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삼층석탑. 상륜부에는 여러 장식과 함께 찰주가 높이 솟아 있다.



❹ 데크 계단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흑룡폭포



❸ 계곡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옛 숯가마터



❺ 물줄기가 구불구불 떨어져나리는 구룡폭포



❻ 물줄기가 두 번 떨어져 내리는 층층폭포. 맑은 날에는 무지개가 핀다.



❼ 층층폭포가 건너다보이는 전망대

❽ 고사리분교 교적비. 분교 터에는 분교 건물이 사라지고 풀만 자라고 있다.



❾ 국내 최대 고산습지인 사자평 습지보호지역에 역새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휴양림 속 또 하나의 견고 싶은 길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은 울산과 밀양 사이에 있는 신불산과 간월산에 걸쳐 있다. 휴양림은 하단지구와 상단지구로 나뉘는데, 두 지구를 잇는 길은 정말 누구나 견고 싶어 할 만한 코스다. 기암이 즐비한 계곡의 풍경은 물론 내내 청아하게 들리는 계곡의 물소리와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수는 방문객에게 걷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신불산은 역사 여행지로 명성이 높다. 매년 가을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의 간월재, 신불산과 영축산 사이의 평원에서는 역사가 몽환적인 은빛으로 출렁이며 등산객을 유혹한다. 신불산이나 간월산을 등반하고 하룻밤을 머물 계획이라면 '영남알프스의 베이스캠프'로 불리는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이 좋은 이유는 휴양림 안에 또 하나의 견고 싶은 길이 있기 때문이다. 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상단지구와 하단지구에 나뉘어 들어서 있는데 두 구간의 거리는 1.7km에 달한다. 두 곳 사이에 도로가 없어 꼼짝없이 걸어야 하지만 산길에는 풍광 수려한 계곡과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는 파래소폭포가 있어 걷는 즐거움이 크다. 휴양림 이름에 굳이 '폭포'를 집어넣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두 구간의 중간쯤에 있는 파래소폭포는 가뭄 때 이곳에서 기우

제를 지내면 비가 내려 바라던 대로 이뤄진다고 해서 '바래소'라 불리다가 이후 파래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15m 높이에서 떨어지며 옥빛 소(沼)에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폭포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상단지구에는 숲속의 집 5동(4인실 1동, 5인실 4동)과 산림문화휴양관이 있다. 하단에는 산림문화휴양관 2동, 7인실 2실이 있는 연립동, 야영 데크 12개가 마련돼 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총 34실로 4·5·6·8인실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 객실 3실(5인실)도 있다.

상단지구와 하단지구 중 어디에 머무는 것이 좋을까. 상단지구 고객은 매일 오후 5시 휴양림 차량으로 한꺼번에 옮겨주지만 사람은 산길을 40분 정도 걸어 올라야 한다. 퇴실 시에는 오전 11시에 옮겨준다. 물론 만 6세 이하 영유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동반한 경우 객실당 차량 1대를 이용해 9km 임도를 따라 상단지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하단지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상단지구가 더 낫다. 상단지구에는 야영 데크가 마련돼 있지만 야영은 할 수 없다. 숯불 사용도 금지된다. 하단지구에 있는 야영 데크는 4~11월에만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객은 목걸이, 휴대전화 고리 등을 만드는 목공예 체험, 파래소폭포를 중심으로 숲을 탐방하는 무료 숲해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

Tip

[이용 방법 & 요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다. 사용 인원내에 맞게 침구, 요리기구, 식기가 갖춰져 있다. 타월을 포함한 개인 세면도구는 지참해야 한다.

▲ 숲속의 집

4인실(1동) 비수기 주중 3만7천원 /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주말·법정공휴일 전날 6만7천원 5인실(4동) 4만6천원 / 8만5천원

▲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18실) 3만9천원 / 6만8천원 5인실(9실) 5만원 / 9만1천원 6인실(4실) 6만7천원 / 11만9천원 8인실(3실) 8만5천원 / 14만4천원

▲ 연립동

7인실(2실) 5만8천원 / 10만4천원

▲ 야영 데크

6천원 / 7천500원

[문의]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하단 ☎ 052-254-2123
상단 ☎ 052-254-2124

